



http://www.nanonet.info

세상을 바꾸는 〈나노기술 사이트〉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지난 3월 8일 미국 보스턴에서는 세계 최대의 나노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인 '나노텍 2004'가 개최됐다. 이 전시회는 나노기술에 대한 전세계 과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998년 컨퍼런스 시작 이래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나노란 그리스어의 난장이란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10억분의 1을 가리키는 미세 단위다.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며 원자 하나의 크기가 대략 0.2 나노미터 정도다. 나노 크기란 원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DNA정도가 나노미터 크기에 속한다.

나노기술은 컴퓨팅, 네트워크, 의료, 로봇, 제조 등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인프라 기술이다. 일반인에게 아직 생소한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노기술 전문 정보망인 나노넷(http://www.nanonet.info)사이트다.

나노기술의 파급 분야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크기를 다루는 관계로 일반인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나노넷은 다소 전문적인 지식으로 구성됐지만, 국내에서 운영되는 어떤 나노 관련 사이트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신 나노기술 뉴스를 비롯해 갖가지 학술 행사와 세계적인 나노기술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나노 위클리 웹진은 한 주간 있었던 나노기술 관련 행사 및 국내외 최신 연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최신 나노소식을 알고 싶다면 꼭 한번 둘러볼 만 한 웹진이다.

이 사이트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보 유통을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어느 곳보다 관련 정보가 총 망라돼 있다. 뉴스센터로 들어가면 그동안 언론에 게재된 각종 나노 관련 뉴스를 모두 볼 수 있으며, 나노 포커스란에선 나노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노행사 코너에서는 국내외 나노관련 컨퍼런스와 전시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관련 행사를 홍보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 행사 참관기 코너를 마련해 사용자가 가보지 못한 전시회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나노 기술과 관련된 국가 정책도 잘 정리돼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EU 등 전세계 국가의 나노기술에 투여되는 예산규모를 비롯해 법률, 정책 뉴스, 정책설명회, 각종 공고 등이 올라온다. 전세계 국가의 나노 기술 투자내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 나노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고 있다.

나노산업 코너에는 관련 기업과 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망라됐으며 나노기술 코너에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학술 논문, 관련 서적, 특히, 리뷰 문헌, 스페셜 리포트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나온 보고서인 '세계의 연료 전지 시장 전망'과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 보고서 등 나노기술이 파급되는 분야의 다양한 보고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글쓴이는 송실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 후 한국전자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